

OVERWATCH®

발 키 리



MICHAEL CHU 단편 소설

발키리



글

MICHAEL CHU

원화

NESSKAIN

치글러 박사 메르시 스킨과 오리지널 컨셉

ARNOLD TSANG

치글러 박사 메르시 모델링

HONG-CHAN LIM

오리지널 메르시 모델링

HAI PHAN

디자인 및 레이아웃

BENJAMIN SCANLON





발키리

오래전 그날 아침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문간을 나서며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면 좋겠다. 온통 회색인 추운 날이었고, 숨 막힐 듯 짙은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내 기억까지도. 부모님의 살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두 분은 옴닉 사태 때에 옴닉 군이 유럽을 휩쓸면서 스위스에도 공격의 여파가 미치자, 현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다. 부모님은 그곳을 덮친 공습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때가 왔을 때 작별 인사를 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 후로 한동안 사람들은 내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거라며 위로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고통은 걸핏하면 돌아오곤 한다.

내가 카이로 외곽의 구호소에서 일하고 있는 오늘도 그런 날이다.

매일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문제들이 닥쳐온다. 나는 지난 2년의 대부분을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이곳 역시 내가 오버워치의 의학 연구 책임자 생활이 끝난 후로 거쳐 왔던 여러 거쳐 중 한 곳에 불과하다. 전문가로서의 평판이 크게 실추되는 바람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폴란드와 대한민국, 베네수엘라를 전전했다. 그곳 사람들은 나를 양겔라 치글러 박사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메르시가 아니라. 내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헌신했던 프로젝트들은 파기되거나, 팔리거나,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전됐다. 오버워치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레나가 계속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안다. 라인하르트는 가엾은 브리기테를 끌고 유럽을 여행하는 중이고, 소전은 캐나다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물론 겐지는 늘 바쁘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는 형을 찾으러 고향으로 간다고 했다. 예테보리로 돌아가서 잉리드와 은퇴 후의 생활을 누리는 토르비욘이 어쩌면 우리 중에 제일 현명한 듯도 하다. 하지만 나는 어딜 가나 오버워치의 메아리를 느낀다. 오버워치가 붕괴했을 때 우리가 남겨 두고 왔던 문제들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그것이 나를 이집트로 이끌었다.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오버워치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재건에 힘을 보태야만 했다. 하지만 따뜻하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돌아가. 당신들이 지금까지 끼친 피해로도 충분하니까.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면 욕을 하면서도 내심 우리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나는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의사가 된 게 아니다.



잭 모리스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물골이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네모난 턱은 물러지지 않았고,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에도 불구하고 노멀 록웰의 그림이 생명을 얻은 듯이 솔직하고 천진난만한 인상이 굳어지지도 않았다. 등에는 최근에 생겨 굵고 있는 상처가 있었지만, 나는 가장 큰 흉터는 그의 머리 안에 있다고 느꼈다. 그가 칸 엘 칼릴리 시장 근처에 있는 나의 웅한 아파트에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등의 상처 때문이었다. 나는 자세히 말해 보라고 다했지만, 모리스는 언제나처럼 말을 아꼈다. 그는 옛날부터 대하기 힘든 환자의 전형적인 예였다.

“저 친구가 죽는다면 분명 저 고집 때문이야.”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 아나 아마리는 내 주방 찬장을 자기 집인 듯이 뒤지며 차를 찾고 있었다. 기적적인 회복력이 모리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나 보다. 우리 모두 아나가 폴란드에서 저격수의 총알을 맞고 죽었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있다. 아나는 더 높고 더 말라 보였다. 우리가 알고 지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도 때가 되면 죽는 인간이구나 싶을 정도로 조금이나마 약해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군 장교 같은 당당한 자세는 여전했다. 하지만 예전의 강단은 한결 누그러져, 내 기억에는 없는 부드러운 면조차 보였다.

“검사를 좀 해야겠는데, 여긴 필요한 장비가 없어요.” 내가 잭의 등에 마취성 봉합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말했다. “여긴 유전공학 연구소가 아니라 구호소라고요.”

“우리예겐 시간이 별로 없다.” 모리스가 건조하게 말했다. “구급상자나 몇 개 구해 줘. 어떻게든 해 볼 테니.”

“최대한 찾아볼게요.” 나는 그가 휴대하는 생체 수류탄 세 개와 아마리의 탄띠에 꽂힌 수면총 카트리지를 생각했다. 오버워치에서 흠쳐낸 물품이다. 수면총의 경우 내 기술을 허가 없이 응용한 것이었다. 내가 오버워치에서 보낸 시간이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예였다.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짜증이 났다. 잭과 아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다행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 둘은 내가 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의 물리적인 현현이었고, 나는 그들이 가져온 것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 거실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호품 상자를 뒤졌지만, 나온 거라곤 돌돌 말린 봉대와 밀봉된 항생제 병, 각종 의료 기구 따위가 전부였다. 모리스의 현재 상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물건이었다. 오버워치가 남긴 영향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해체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집트의 붕괴하는 인프라에서부터 일상적이기 짝이 없는 하늘색 봉대 포장지까지 어디에서나 그 여파가 느껴졌다. 솔직히 말하면, 오버워치를 잊는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낙관적인 목표였다고 해야겠다.

잭이 구호품 상자를 직접 뒤지기 시작했고, 곧 그 옆에 조그만 물건 더미가 생겼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앙겔라?”

“구급상자 찾고 있잖아요.” 내가 쏘아붙였다. “당신 부탁대로요.”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그는 유독 비싼 의료 스캐너를 손에 들고 재미있다는 듯이 돌려 보고 있었다. “카이로에서 뭐 하나는 말이야.”

“그거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나는 잭을 쏘아보며 스캐너를 낚아채서 다시 상자 안으로 던졌다. 쿵 소리가 나는 바람에 나는 움찔했다. 나는 참고 있는지도 몰랐던 숨을 내쉬었다. “여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고? 돕기 위해서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곳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집트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돕고자 하는 사람은 부족했고,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내 예전의 직책들처럼 명예롭거나 흥미진진하진 않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확실히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이었다.

“네겐 병원이나 대학 연구소가 잘 어울리긴 하지.” 아나가 말했다. 마음에 드는 찾았을 찾은 모양이었다.

“알고 보니 유명 오버워치 요원 출신이라는 경력은 사람들이 이력서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더군요.” 내가 받아쳤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그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만 같았다. 지난번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던 열띤 논쟁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전 조용히 사는 편이 좋아요. 두 분과는 달라요.”

잭이 노력보았다. “그나마 내 적은 내가 놈들을 노리고 있다는 건 알지.”

“당신의 적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다. “미국 정부, 독일 최고의 은행, 헬릭스 시큐리티.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루메리코.” 잭은 무모하게도 자랑스러운 목소리였다.

“멕시코 최대의 전력 회사 말이군요. 마침 멕시코 전 대통령이자 만인의 사랑을 받는 전쟁 영웅이 대표로 있는 회사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건 당신의 평판에 별로 좋지 않아요.”

“불가피한 전쟁의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야.” 모리스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당신은 늘 합리화를 잘했죠.” 내가 말했다. 잭의 이전 직책에서는 사고의 유연성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새로운 삶을 사는 지금도 그의 그런 점은 변하지 않은 듯했다.

“이제 배후를 알아내는 데 가까워졌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열정은 집착처럼 들렸다.

“진실이라.” 나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오버워치에 일어났던 일의 진실. 탈론, 스위스, 모든 것에 대한 진실 말이야. 그게 이제 나의 새로운 임무다.”

“별로 새로운 거 없어 보이는데요. 마스크를 빼면 말이지.”

“그럼 어찌라는 거지?” 잭이 받아쳤다. “지브롤터로 날아가서 윈스턴이랑 같이 살기라도 하라고? 오버워치를 무너뜨린 자들이 윈스턴도 죽이려 들지 않을 것 같나?”

윈스턴은 온 세계에서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버워치를 궁극의 해결책이라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라도 해 봤을까? 그는 오버워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필요로 했기에, 그것이 우리 모두를 손상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잭과 아나와 함께 그곳에 있자니, 우리 모두 여전히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질 뿐이었다. 예전과 똑같이 해서는 그저 또 하나의 재앙을 낳을 뿐이었다. 세상에 이제 재앙은 필요 없다. 윈스턴의 속뜻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옳은 것은 아니었다.

“윈스턴은 영웅 노릇이나 하라고 해.” 잭이 경멸조로 말했다. “나는 해야 하는 일을 할 테니까. 레예스, 오군디무, 막시밀리앙, 비알리, 솜브라, 오디오런... 그리고 그 잔당. 전부 내가 처리하겠어.”

레예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다. 나는 모리스, 아마리, 레예스... 그 셋을 모두 물어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남아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잭. 오버워치는 이제 없어요. 당신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해 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놈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지.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어.”

“정의라.” 나는 코웃음을 쳤다. 고통이 고뇌와도 같이 그를 쪼먹는 것이 보였다. “계속 그러다간 오버워치가 정말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요. 당신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 옛날 처음으로 모리슨의 구석 사무실에 발을 들였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취리히 대학 병원의 외과 과장 직책에서 갓 거취를 옮긴 나는 들떠서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처음에는 박물관 전시실에 들어간 줄만 알았다. 벽 곳곳에는 모리슨이 여러 국가의 수장과 함께 찍은 사진, 타격팀의 사진, 군 복무 시절의 기념품 등이 걸려 있었다. 책장도 하나 있었다. 낡은 가죽 장정의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유명 장군들의 전기를 포함하는 역사서 전집이 벽 한쪽을 따라 깔끔하게 꽂혀 있었다. 옆에는 게임이 진행 중인 상태인 체스판과, 귀가 여기저기 접힌 보비 피셔의 기보집인 *잊지 못할 60개의 게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책상 뒤에 책 모리슨 본인이 앉아 있었다.

“논문 봤습니다. 훌륭하더군요. 그걸 보니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최근에 발표한 나노생체 치료에 대한 논문 이야기였다. 나는 그 기술이 진찰실 내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혁신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인쇄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었고, 오버워치에서라면 그 어느 조직에서보다도 빨리 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제 논문을 읽으셨다고요?” 나는 그가 웬만한 대학원생도 바로 소화하기 힘들 만큼 기술적인 연구 논문을 정독하는 모습을 상상하고서, 믿기 힘들다는 듯이 물었다.

“대강은 이해했을 겁니다.” 책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히 따져 들어 그를 민망하게 하진 않기로 했다. 그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건네주고 있었으니까.

“초록은 읽기 쉽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미소지었다.

“양겔라, 당신이 의학 연구 책임자로 오버워치에 합류해 주면 좋겠군요. 우리의 자원으로 나노생체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의 기대 수명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를 뒷받침할 제조 역량이 확보되면, 생체 기술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도 꿈이 아니었다. 의료 서비스의 장벽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지도 몰랐다. 의료 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설 것이었다. 모리슨은 내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돈과 자원, 인력.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라면 그게 가능하죠. 당신이 지휘권을 가지고, 당신이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연구원이 한 명 필요해요, 사령관님.” 내가 말했다. “혹시 남은 사람 있나요?”

“남는 사람이랴. 훨씬 괜찮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모리슨은 창밖으로 아래의 안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파란 방어구를 갖춰 입은 경비병들이 질서 정연하게 대로를 지어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군인은 차고 넘칩니다.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박사님은 지구상에 살아 있는 만민의 삶을 바꾸어 놓을 혁신을 일으키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고, 박사님이 의료 혁신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장애물을 모두 치워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제안이었다. 완벽하게 들렸다. 하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얘기를 들을 때면,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알 테르 인테 굴드 숨 글림마르.”* 토르비온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반짝이는 것이라고 모두 금은 아니다.* 나는 매사 의심이 많았다. 그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습관이었지만, 교육을 받고 어쨌면 토르비온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기질이 더욱 강해졌다. 그 습관은 대체로 내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과학 연구에도 도움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날을 세우는 일이 있긴 했지만, “정말 관대한 제안이군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평화시 민간 부문에 활용되는 기술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버워치 사령관들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단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모리슨은 양손을 맞댔다. “음닉 사태가 끝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버워치는 전쟁에 승리하려고 결성되었지만, 제게도 이제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죠.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학, 화학, 인프라, 기후학 등,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 분야의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여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옴닉의 창조 이후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부를 분일지도 모르니까요.”

모리슨과 군 규정을 따라 깎은 그의 머리, 온갖 메달과 훈장을 바라보았을 때, 내게는 군인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자세마저도 그랬다. 몸에 실이 달려 있어서 그를 차려 자세로 일으켜 세우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군대라는 틀 안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자아낸 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곧이곧대로 믿는 재능을 지닌 군인. 세상을 진짜로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모리슨을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그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의 밑에는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모리슨이 자기 말을 믿는다는 건 확실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앙겔라.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요. 우리 임무를 도와주신다는 건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모리슨이 말했다.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신형 장비를 사려고 흥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약속하죠.”

“연구원도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원하시는 만큼 뽑아 드리지요.”



책상에 앉아 잠들었던 나는 웬 폭발음에 소스라치며 깨어났다. 땅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후로도 작은 충격이 여러 차례 이어져서 유리창이 창틀 안에서 덜거덕거리며 흔들렸다. 조명이 깜박거렸다. 멀리서 베이스 드럼처럼 우르렁거리는 뇌성이 들려왔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씨와 전쟁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얼른 옷을 입었다. 나는 뇌성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도 남을 만큼, 카이로에 오래 살았다. 구호소에 가서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해야 했다.

얼마 후, 모리슨과 아나가 어둠 속의 두 생령처럼 문간에 나타났다. 내가 익히 아는 얼굴들은 마스크에 가려 있었고, 표정이라고는 붉은색 선 하나와 파란색 다이아몬드 하나가 전부였다.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아누비스 시설에 공격이 있었다. 가야 해. 당장.” 모리슨의 목소리는 입을 덮은 마스크의 장치를 통해 왜곡되어 나왔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를 조작하여 일말의 인간성마저 제거했다.

“헬릭스가 상황을 수습할 거예요. 가 봐야 혼전에 휘말릴 뿐이에요.”

“탈론이야.” 잭이 말했다. 내가 잘 아는 어조였다.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듣지 않을 터였다.

“양겔라, 혼전에 휘말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겐 도움이 필요한데, 헬릭스는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지.” 아나가 반박하려는 나를 가로막았다. “같이 가겠어?”

나는 카이로의 응급 치료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지난번 공격으로 한 지역이 통째로 초토화됐고, 아직도 도시는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구호소에도 아직 지난번 공격으로 집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헬릭스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용병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민중이 아니라, 정부의 이해관계를 지킨다. 그들이 오버워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나는 구호소에 있어야 한다. 상황을 정리하고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분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안다.

“갈게요.”

나는 발키리 슈트를 커다란 포장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다. 생체 인식 잠금장치가 만족스러운 철컹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나는 슈트의 구성품을 바닥에 늘어놓았다. 흉갑, 통신 장치와 스캐닝 바이저, 생체 탄약, 추진 장치, 지팡이까지. 구성품 하나하나의 수송에 대비하여 꼭 맞는 폼 패딩에 들어 있었다. 한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로. 하얀 흉갑을 폼 패딩에서 꺼내려고 손을 대자, 현장에서 뛰던 시절에 생긴 상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굵히고 패인 자국,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생각나게 하는 흔적들. 나는 짐쇠를 채웠고, 전원이 들어오자 흉갑은 내게 맞게 형태를 바꾸었다. 내가 필사적인 순간마다 그러되었던 지팡이의 손잡이는 내 손에 맞게 패어 있었다. 헤드셋과 처리 장치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계나 다름없었으니.

슈트는 아직 잘 맞았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잊고 있었을 뿐.



하늘을 날기 전에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타격팀에 속한 모두는 비행을 계기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레나는 예전에 조종사였고, 윈스턴은 우주선을 타고 달에서 지구로 오기도 했다. 나는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인생관이 완전히 변한다는 말을 하던 것이 기억났다. 하지만 그중에도 나처럼 하늘을 날았던 사람은 없었다.

아래로는 카이로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다. 푸르렀던 도시는 10년간의 쇠퇴 끝에 갈색으로 바래고 있었다. 나일 강을 따라 지어진 첨단 농업 기술 시설들이 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중이었다. 강둑을 따라서는 태양광 패널과 광활한 배터리 농장이 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미처 다 사용하기도 힘든 양의 전력을 저장하고 있었다. 나일 강의 강물은 번영하는 문명을 낳았고, 아무리 나라도 현재의 상황이 영구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도시의 나머지 지역에는 까마득한 훗날까지 남아 있을 피라미드들이 파수꾼처럼 솟아 있었다.

그 피라미드의 그림자 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셋은 공격 현장으로 향했다. 헬릭스 시큐리티가 탈론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중이었다. 검고 붉은 수송선들이 맹금처럼 하늘을 맴돌았다. 그 위로는 랩토라 부대의 제트 추진기가 뿜는 불꽃이 보였다. 저 사람들은 걱정되지 않는다. 의무병들이 곧 돌봐 줄 테니. 하지만 나는 근접 거리에서 발사되는 로켓들이 도시를 파괴하는 광경을 보고 움찔했다. 아래의 어둑어둑한 거리에서는 노병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모리슨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재킷을 입었는데도 의외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자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는 은밀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다. 발키리 슈트의 스캔 장비가 없었다면 그는 내게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하긴, 내게 전투는 언제나 흐릿하게 보였다. 공격과 위치 선정, 전술 등. 그런 전투의 잡음은 머릿속에서 줄여 버리고, 남들에게 말린다. 나는 내가 맡은 일, 목숨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민간인들이 그곳에서 대피하려 하는 중이었다. 내 HUD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징후가 마구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혼란스럽고 집요한 화면을 해독해야 했다. 나는 덩치 큰 탈론 병사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잭과 아나를 분간해 냈다.

나는 메르시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내게 다짜고짜 맡겨진 책임이었다. 발키리 슈트의 개발 목적은 내 기술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다. 내 팀원들이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워 주었으면 한다는 것을. 그렇게 치글러 박사는 조금씩 조금씩 물러나고, 메르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모리슨은 아나가 위에서 지켜보는 동안 되는 대로 적에게 달려들었다. 붉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마스크를 쓴 탈론 병사들이 사방에 깔려서, 파란색의 헬릭스 병사들을 궁지로 몰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밤을 가르며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고, 내 눈길은 밤보다도 검은 덩어리에 꽂혔다. 그 안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의 한가운데에서 폭풍처럼 충격이 뿜어져 나왔고 두 노병은 엄폐물을 찾아, 내 시야 밖으로 뛰었다.

“저게 뭐죠?” 나는 숨죽여 말했다.

“가브리엘이야.”

나는 귓속에 들리는 잭의 격한 목소리에 흠칫 놀랐다. 수십 가지 의문이 앞다투어 나의 의식으로 올라오려 했지만, 당장은 억눌러야만 했다. “무시해요, 모리슨. 우린 사람을 구해야 해요.”

“그건 당신 일이지, 의사 선생. 이젠 우리 일이고.” 그러고는 통신 채널이 잠잠해졌다.

나는 두 사람이 숨 막힐 듯한 연무에 집어삼켜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리슨이 앞장서서 뛰었고, 아나는 경계하며 그의 뒤를 엄호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내 일이 있으니 지금은 둘을 걱정하고 있을 수가 없다.

탈론은 민간인의 목숨이나 건물 파손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용병이나 마찬가지인 헬릭스 시큐리티의 군대도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로켓들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고,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 지역에서 달아났다.

내 HUD는 집요했다. 내 아래 어디엔가 생명 징후가 있었지만,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무작정 연기 줄기를 뿜으며 아래로 곤두박질치듯 내려갔다. 연기가 눈을 파고들었지만, 콘택트렌즈가 서서히 연기를 걸러 냈다. 그때 하얀 섬광이 눈앞을 스쳐 가며, 연무와 먼지 너머로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발키리의 기동 장치를 가동하여 그것을 향해 똑바로 날아갔다. 그 지점을 머릿속에 똑바로 새기려고 노력하며 그 독한 공기 속으로 떨어졌다. 내려가면서 연기가 열리지자, 다시 그것이 눈에 띄었다. 하얀 티셔츠를 입은 갈색 머리의 작은 여자아이였다. 과거에 나를 스쳐 갔던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었다. 전투는 여전히 사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생존과 승리, 명예를 위해 싸웠지만, 무고한 사람들은 그 군홃발 아래에 짓밟혔다.

여자아이는 나를 보고는 양팔을 휘저으며 내 눈에 띄려고 했다. 나는 재빨리 연기를 가르고 내려가, 건물 옥상의 들머더기 사이에 내려앉았다.

“움직이지 마렴.” 내가 말했다. “다리가 끼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치고 체념한 듯한 얼굴의 아이는 나를 절박하게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런 광경들이 어린 나에게 상흔을 남겼었다. 사람들이 파괴의 현장을 떠나려고 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야간의 기습 작전으로 도시가 초토화되던 광경을 기억했다. 달이나 별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 위의 밤하늘보다도 까매 보이던 깜박이는 붉은 빛과 검은 형체가 보일 뿐이었고, 눈부시고 하얀 폭발이 일어나자 곧 그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피소로 피할 시간은 없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자신을 엄폐해야 했다. 소리는 귀가 먹을 듯했다. 연기는 숨이 막힐 듯했다. 공포는 압도적이었다.

“내가 치워 줄게. 알았지? 잠깐만 기다려.”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아이는 쟁반처럼 휘둥그런 눈으로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몸을 반쯤 깔고 있는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를 당기기 시작했다. 누가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터였다. 윈스턴, 라인하르트, 소전, 아니면 겐지가 있었다면 딱 좋았겠지.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강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잔해에 묻힌 사람들을 구해야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도 발키리 슈트의 힘이 아니었다면 바위를 절대 치우지 못했을 것이다.

“언니는...” 아이는 알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문을 열었다. 아이가 몸을 움직였고, 나는 그 아이가 너무 빨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깨에 손을 얹었다. 흥분과 아드레날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문장을 대신 끝맺었다. 나는 공 소리를 내며 벽의 파편을 들어 한쪽으로 던졌다. “라인하르트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인하르트요?”

“내 친구란다.” 내가 말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 실 틈 없이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힘겹게 당기자, 날개가 펼쳐졌다. 나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 얼굴에는 검명과 재가 묻어 있었고, 희미한 눈물 자국이 감처럼 그 위를 지나갔다.

“이름이 뭐니?” 내가 물었다.

“하난이요.” 아이가 소심하게 대답했다.

“잠깐 스캔할게.” 내가 말했다. 아이는 아리송한 표정이었지만, 발키리의 스캔 모듈에서 나오는 하늘색 빛이 자신을 훑는 동안 조각상처럼 꼼짝없이 서 있었다. 부러진 곳은 없었다. 괜찮을 것 같다. 몇 군데 자상과 찰과상이 있었고 그중에는 피가 나는 곳도 있었지만,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정도였다.

나는 지팡이를 들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생체 광선을 켜자, 지팡이에서 금색 빛줄기가 나와 하난을 둘러싸고 마치 햇빛처럼 천천히 반짝였다. 공중에서 반짝이는 먼지처럼 자그마한 빛의 티끌들이 하난의 피부에 주근깨처럼 내려앉았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는가 싶더니,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손을 대기라도 한 듯이 움찔했다. “조금 뜨거울 수도 있단다.” 내가 말했다. “참기 힘들면 말하렴.”

아이의 고개를 끄덕이고 상처가 아무는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마법 같아요.” 아이가 말했다.

“과학이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마법보다 훨씬 낫지. 나노생체공학이라고 들어 봤니?”

“어... 작은 기계 같은 거예요?” 아이는 파리 떼를 쫓는 듯이 손을 살짝 움직였다.

“그건 아니야.” 나는 전 세계의 의료 서비스에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기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실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내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

“아직 가면 안 돼요!” 하난이 말했다. “우리 오빠가 안에 갇혀 있어요. 구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지도 않고 가 버렸어요.” 거리에서는 아직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둔탁한 박격포 소리 사이에 귀에 거슬리는 자동 화기의 발사음이 섞여 있었다. 여전히 상황은 극도로 위험했고, 하난이 필요 이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부탁이에요.”

도저히 아이의 오빠를 놓고 갈 수는 없었다. 나는 발키리의 스캐너를 사용해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전기 간섭 때문에 레이더로도 육안으로도 대상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널 여기 두고 갈 순 없으니, 같이 가야겠구나.”

하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있던 건물은 여러 차례 폭격을 당한 상태였다. 우리는 입구를 비집고 들어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내려가는 동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나는 치마를 조금 찢어 하난에게 마스크를 만들어 주었다. 경보가 귀가 찢어져라 울렸고, 번독이는 섬광이 여전히 그곳을 밝히고 있었다. 우리가 계단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아갈 때,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갔고, 가까이 가자 생명 징후가 하나 잡혔다. 하지만 우리와 신호 사이에는 육중한 문이 있었다. 나는 문에 어깨를 대고 밀어서 겨우 열었다.

방 안에는 하난보다 나이가 많고 빨간색 셔츠를 입고 노란 목도리를 두른 남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팔이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 것을 보니 골절인 듯했다. 아이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었다.

“하난, 너야?” 아이가 물었지만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다가가는 우리의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천장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난이 먼저 뛰어나가 오빠 곁으로 가더니, 최악의 상황이 걱정되는지 목으로 올라오는 울음을 겨우 삼켰다. “응, 나야. 내가 도와줄 사람을 데려왔어.”

“맞아.” 내가 남자아이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우리가 널 데리고 여기서 나갈 거야.” 나는 아이가 쇼크 상태에 빠질까 봐 걱정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려면 우선 최소한의 치료를 해야 했다. 생체 광선으로 치료하면 잠깐은 버틸 수 있을 터였다. 하난이 그랬듯이 남자아이도 금빛 광선에 잠시 휩싸였다. 천천히 반짝이는 빛 때문에 마치 가슴 자체가 일렁이는 듯했다.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편해졌다. 나는 다시 하난을 보았다.

“됐어. 이제 오빠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자.” 내가 말했다.

하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오빠가 겁에 질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좀 어떠니?” 나는 발키리의 음파 탐지기로 아이를 스캔하며 물었다. 아이가 자기 몸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걸기 위해서였다.

“아파요.” 아이가 기침을 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메르시네요. 사진에서 봤어요.”

“맞아.”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이런 때에는 메르시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은 그것이 하난의 오빠에게 의지가 되어 줄 터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갈 거니까.”

“엄마 아빠는 누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민망해하는 듯한 말투였다.

“부모님을 만나면 내 얘기를 잘 전해 주겠니?”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의 안색이 변했다. 자기 말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나 걱정됐나 보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이는 고개를 주억이며 열심히 말했지만, 그 정도의 동작으로도 심하게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자, 내가 상황을 설명해 줄게. 우리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해. 갈 수 있겠니?”

“어, 아마도요?”

“그렇구나. 괜찮을 거야.” 내가 말했다. “아주 천천히 가면 되니까. 하난이랑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 순간 박격포탄이 날아오는 특유의 소리가 들렸다. “엎드려!” 나는 고함을 지르고 하난을 붙잡으면서 하난의 오빠를 향해 몸을 날려, 내 전신과 발키리의 날개로 아이들을 최대한 가렸다. 벽이 밖으로 터져 나가면서 콘크리트와 유리가 방 안으로 날아와 내 슈트에 부딪혔다.

천장에서는 파편이 후드득 떨어지며 나를 두들겼다. 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다행히도 슈트의 완충재와 보호막이 충격을 완화해 주었다. 마침내 포격이 멈추었을 때, 이 슈트의 방어구를 제작해 준 토르비온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섰다. “괜찮니?”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나는 직접 살펴봐야 했다. 슈트의 화면이 나간 상태였다. 일어서는 순간, 한쪽 날개에서 짹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망가졌군. 나는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고, 아까 힘을 썼던 일의 여파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난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 겁에 질려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난의 오빠는 움직이지 않았다. 폭격의 충격이 너무 심해 정신을 잃은 모양이었다. 밖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히기라도 한 것처럼. 발키리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어느 모로 보아도 우리는 갇힌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사방의 벽이 우리를 향해 거리를 좁혀 오는 것만 같았다. 병원이 폭격당한 후, 부모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두 분은 함께 있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고는 있었을까? 나는 부모님을 위해, 차라리 물랐기를 빌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터였다. 건물이 단말마를 맞이하는 듯이 신음하고 있었다. 불길히 안으로 변질 가능성도 있었다. 직식사. 압사. 또 한 번의 폭발.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지팡이를 등에 메고 남자아이를 안아 올린 다음, 출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오렴, 하난. 조심하고.” 나는 복도 하나를 지나서 바닥에 떨어진 틈새를 넘어 다음 복도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마침내 주 출입구에 가까워졌지만, 또 폭발이 연이어 일어나며 건물을 뒤흔들었고 벽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난에게 소리쳤다. “뛰어! 문으로 뛰어!”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나는 하난의 오빠를 안은 채였다. 아이의 이름도 모른다니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바닥의 균열을 뛰어넘으며 울퉁불퉁한 바닥을 달렸지만, 이미 가망은 없었다. 벽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다. 주위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의 두뇌가 탈출구를 찾아 바삐 움직였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복잡한 해결책이 없을 때면, 오히려 상황이 간단해지기도 한다. 나는 내게 의지하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건물이 통째로 붕괴하며 내 등을 덮치는 순간 하난의 오빠에게 감싸 안았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다시 시야가 밝아졌을 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다. 내 밑에는 하난의 오빠가 있었다... 이름이 뭐지? 발키리 슈트가 출력하는 정보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멀쩡했다. 멀쩡하다는 말의 정의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하난.” 나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기침을 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등 뒤에서 파편이 후드득 떨어졌다. 강인한 팔이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모리스이었다. 마스크를 벗자 비로소 다시 인간 같아 보였다. 잭의 얼굴은 마스크가 있던 자리만 제외하고는 온통 먼지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고, 재킷에는 구멍이 몇 개 더 생긴 것 같았다.

“양깸라. 여기서 나가야 해.” 그가 말했다.

“여자애가 있어요.” 내가 쿨럭대며 말했다.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어.” 아나의 목소리가 연무 속에서 들려왔다. 아나는 표범처럼 몸을 도사리고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가야지.”



나머지 하루는 경찰관과 헬릭스 요원, 구조대 요원을 포함하여 교전에 휘말렸던 부상자들을 받아들이는 동안 정신없이 지나갔다. 의사도, 침상도, 환자들을 모두 살필 시간도 부족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나는 기진맥진하고 감각도 없었으며, 오로지 커피의 힘으로 살아 있었다.

마침내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해가 지평선 뒤로 모습을 감추고 밤의 한기가 구호소에 내려앉은 후였다. 잭과 아나가 나를 보러 들어왔다. 마스크는 벗은 후였지만, 그 기억만큼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려고요?”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둘은 각자 커다란 가방을 지고 있었다.

“가브리엘이 왔었으니, 그를 따라가야겠지.” 잭이 말했다.

아직은 전장에서 보았던 광경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살아남았나요?” 나는 질문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움찔했다. 오늘은 이미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노병은 쉽게 죽지 않으니까.” 잭이 한숨을 쉬었다. “가브리엘이 공격을 지휘했다. 단서가 희미해지기 전에 쫓아야 해. 아무래도 유럽 어딘가에 있는 것 같군. 우리도 유럽에 가는 길에 여기 들렀거든. 옛 친구들을 만날 겸 말이야.”

“그렇군요. 행운을 빌게요. 무엇을 찾는지는 몰라도... 그걸 찾기를 바랄게요.” 내가 말했다.

“우리도 같이 가도 되고, 당신 도움은 여전히 필요할 테니.” 모리슨의 표현으로 봐서는 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여기 있을 수는 없지만, 같이 갈 수도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모리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운을 빌겠다, 양겔라. 그리고 구급상자 고마워.” 그는 씩 웃고는 짐짓 경례를 해 보이더니, 배낭을 어깨에 지고 걷기 시작했다. 아나는 잠시 남아 있었다. 우리 둘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린 모두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 아나는 한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리며 말했다.

“우린 같은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아나.” 내가 말했다. “전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는걸요.”

“그렇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잖아. 잭은 예전처럼 이상주의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무모하고.” 아나는 한숨을 뿜었다. “우리를 지나쳐 가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 잡고 싶은 법이지.”

“과거와 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도 그걸 알아야 해요.”

“잭은 언제나 싸울 대상을 찾을 거야. 그래야만 하니까.” 아나가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 세대의 전쟁은 끝났어. 어느 세대에나 그 나름의 전쟁이 있는 법이지.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지? 피를 위해, 돈을 위해, 왕과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우리의 신념을 위해. 전장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냐. 몇십 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의 전쟁은 순식간에 끝났지. 가브리엘은 인류를 구하려고 우리 팀을 구성했지만, 그 후에 재구성을 하는 데는 실패했지. 아다웨와 사람들은 모리슨이 그걸 해낼 인물이라 생각했어. 그럴 인물처럼 보였거든. 전쟁 영웅이니까. 정과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정치적이진. 하지만 그도 결국은 군인이야. 그리고 군인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밖에 몰라.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일이 아니야. 구하는 게 우리 일이지.”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죠.” 내가 말했다.

아나가 슬픈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뒤따르는 세대에 투쟁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어. 우린 평화에 어울리지 않아. 나도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아나는 안대를 가리켰다. “은퇴해서 조용히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여기 있고. 너, 레나, 소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점이 다르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내가 원한 것은,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뿐이었거든.”

“그럼 윈스턴에게 돌아가면 어때요? 잭의 복수는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상주의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야, 양겔라.” 아나가 말했다. “그래도 우릴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마. 일단 영웅이라 불리기 시작하면, 그 책임감을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그녀는 슬픈 웃음을 지었다. 이제 할 말은 없었다. 아나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작별 인사에는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내 인생은 입 밖으로 나오든 아니든, 작별 인사로 가득했는데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인사가 더 많았고, 그게 나를 더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제야 작별 인사를 건넬 기회가 다시 생겼는데도,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무덤에 대고 인사를 했었고, 멀어지는 둘을 바라보는 지금은 그때처럼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시 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잘했습니다, 메르시.” 내가 임시 접수처로 삼고 있는 대형 막사의 천막을 젖히자 마무드가 말했다. 그는 인사를 하면서도 화면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고, 빠르게 키보드를 치며 바빠 일하고 있었다.

“말도 꺼내지 마요.” 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무드가 조금 기가 꺾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당신을 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서 몇 달째 버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즐거웠다면 좋겠네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데려온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무드는 키를 몇 개 눌렀다. “아직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직 모르나요?”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 됐는데요.”

마무드는 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

마무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양친 모두 이번 공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척을 찾는 중이죠.”

나도 한때는 부모님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어린아이였다. 나에게 소식을 전해 주려 왔던 경찰관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한데,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치글러 박사님?” 마무드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내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올라가 안경 아래로 눈가의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사님이 아이들을 찾아서 그 건물에서 데려 나오지 않았다면 둘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막사 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져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다.

기자 평원과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의료 막사에 황혼이 내렸다. 황혼의 마지막余光을 반사하는 막사의 하얀 캔버스가, 수천 년의 비바람과 햇빛을 멀쩡하게 견뎌 낸 마스타바처럼 보였다. 근처의 무덤에 사는 고대 이집트인은 삶에서도,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죽음에서도 많이 베풀었지만 그것은 모두 허사였다. 두 막사 사이의 틈에서 하난과 오빠가 보였다. 남자아이는 코트 위에 누워 있었고, 하난은 그 곁에 앉아 오빠의 기분을 띄우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아나의 말이 떠올랐다. 지난 수년간 나는 나의 싸움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모리슨의 사무실에 들어서던 순간, 그리고 내가 오버워치에 처음 합류하던 순간을 돌이켜 보면, 다시 그때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다. 하지만 그때 내 안에서 타오르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투쟁과 의심, 논란 때문에 한때 내 안에 있던 넓고 넓은 영웅심이 고갈되어 버렸다. 나는 어쩌면, 한 번 소진해 버린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매일 닥쳐오는 난관과 위기에 맞서야만 한다. 때로는 투지가 잦아든다 해도, 그것은 언제나 다시 타오른다. 양팔을 날개처럼 펴는 하난을 지켜보며, 나는 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웅은 죽지 않으니까.







BLIZZARD[®]
ENTERTAINMENT